

2025년 APEC 정상회의 제8차 준비위원회

- 2025. 9. 5.(금) 10:00, 정부서울청사 -

지금부터 APEC 정상회의 제8차 준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

이제 APEC 정상회의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. 황금연휴 추석이 있지만, 저희는 그때도 마음 바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

APEC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, 전체적인 상황이 특별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더 관심도와 규모가 커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

사실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제일 걱정하던 대목 중에 하나가 APEC이었고, 그래서 제가 총리로 취임한 후에 인프라는 조성중이고, 프로그램은 기획중이고, 서비스는 개선중인데, 이게 과연 잘 되겠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다들 애써주셔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

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초격차 APEC을 하자, K-APEC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, 우리 관계 장관님들을 포함해서 다 준비를 해 주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

우선, 인프라가 9월 중순, 늦어도 하순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인프라를 특별히 지금 챙기고 있는 부처에서는 정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 회의에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혹시 만찬장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 점검을 하면서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지 점검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.

두 번째로는, 각종 프로그램하고 문화행사의 완성도를 아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. 특별히 문체부 장관님과 함께 얼마전에 같이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마는 APEC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특별히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세 번째로, 디테일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선하고 경호 관련한 부분도 다 같이 가서 점검했는데요, 최종적으로 식사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, 디테일에 있어서 마지막 완성도를 높이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

오늘 회의를 통해서 각 부분 저희들이 보고를 듣고,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점검할 대목이 무엇인가를 의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

특별히 이제 시기가 임박하면은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거의 매일매일 상황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듣고 있는데, 상공회의소를 포함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의식이나 필요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충이 좀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. 그런 현장 상황 점검 체계도 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.

오늘 회의를 다시 한 번 계기로 해서 모든 부처 또 특별히 경상북도, 경주시, 함께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APEC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과정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.